

#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안 짓고 하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데, 내가 그걸 고행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야, 그러면 어린 고아가 고생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럼 다가오는 걸 그거 안 살니까? 누가 고행을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고행을 하려고 그래서 아닌 게 왜 나하면 내가 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참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 돌이 아닌 도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버린 채 그대로 길을, 즉 말하자면 주막도 없고 번지도 없고 그런 길을 그렇게 걸었더니 시공이 없는 초월이 자체도 알았고 또는 끝난 데 없이 시발점과 종점도 없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행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하, 이 고행을 꼭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수행을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지금 있지 않아요?

**질문자3(남)**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저희들이 지금 속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삶 자체 내에서 짧게 어떻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화두를 던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빨리 깨치는 방법은 없지요, 하하.

**큰스님** 도라고 할 건 없지만, 아까도 얘기 했어요. 다섯 가지를 다 알아도, 이 세상을, 천문학을 두루 그냥 꿰뚫어서 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가고 몸이 없이 이 우주를 한 찰나에 전부 다녀온다고 그래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남의 속을 뻔히 알아도 도가 아니요, 남이 과거에 어디서 온 거를 알아도 도가 아니요, 그럼 뭐가 도냐? 거기에서도 벗어나게 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어려운 것은 빼 버리고도, 지금 간단히 말해 달라고 그랬죠?

**질문자3(남)** 예.  
**큰스님** 허허,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또 이 생활하는 데 모든 용도에 따라서 딱치면 바로 그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고 '야, 나 온 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잘 돌아가게끔 나올 수 있거든, 이열치열처럼.

**질문자3(남)** 거기서 나왔다는 건 부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스님** (손을 가로저으며) 당시 마음속에서, 당시.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야. 생명, 마음, 육체 움직여가는 거, 이것이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공존하는데 이 배 속에 있는 것도 꼭 바로 그렇게 공존을 하거든. 그러니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놔

때,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한다 하고 믿었을 때, 바로 그 몸뚱이가 나온 게 화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예요, 바로. 그러니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아주 그대로 참, 실행이 되는 거죠. 실천이 되는 거고요.

**질문자3(남)** 저도 옛날에 머털 깎고 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절에 안 들어가도 제 스스로가 지금 도를 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큰스님** 그렇죠. 그걸 알면 좋죠. 그런데 처자식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버리고 먼 데 좋은 거 찾자고 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머털 깎느냐? (장삼 자락을 들어 보이시며) 이 의복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이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를 한데 합친 바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순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머리를 깎는 거는 이 세상, 어지러운 무상한 세상을 깎아 버리는

서 이렇게 깎아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깎아야 되고, 나중에 알아 가지고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 되기가 얼마나 어렵고 점점 갈수록 어려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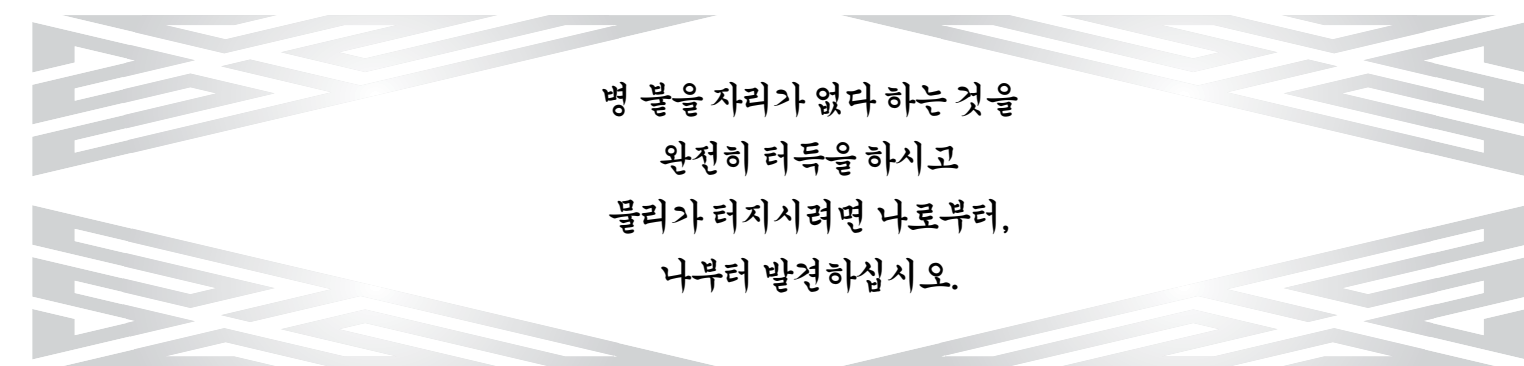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 자기 몸뚱이가 화두요, 자기 몸뚱이가 움직여가는 게 바로 자기의 보현이요, 자기가 생각 내는 게 법신이요, 자기가 가만히 앉고 있는 게 부처라는 겁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연히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면서 죄를 낳지 않고 속세에서 살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큰스님**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안 짓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남)**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큰스님** 하이고 참!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오실 때 지금 발자취를 짚어지고 오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겁니다. 예를 따져서 말한다면. 무상한 것을 구태여 그렇게 놔둘 필요가 있다 해서 그냥 깎아 버리는 겁니다. 수효로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입산을 하고 그러느냐, 여러분보다 우리가 위대하죠. 왜 위대하냐? 높고 낮음은 없지만 높은 건 높고 얇은 건 얇죠. 평등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죠. 그런 관계상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탁 이렇게 나와서 입산한 것만 해도 여러분보다 90%가 위죠. 또 하나, 둘째로는 모르는 중생들이 벌써 이 옷을 입고 머리 깎은 사람 보고 "스님! 날 좀 구원해 주시오." 하지 아니, 공부할 했다고 그래도 웃도 입지 않고 머리로 안 깎은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오.' 한다면, 공부 못 한 사람들도 그걸 볼 줄 알면 그럼 다 똘 사람이게요? 께게요? 자기네들하고 똑같은데 거기 가서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생을 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체를 구하려면, 법을 구하고 또는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보이는 데 방편으로

**질문자3(남)** 차를 짚어지고 왔습니다. 하하...

**큰스님** 에이, 차는 여러분의 몸과 같고, 운전수는 여러분의 마음과 같고, 기름은 여러분이 나기 이전 원, 즉 말하자면 주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불성이요, 기름이. 불성으로 치면 됩니다. 탁 불이면 불이 번쩍 일어나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차와 운전수와 기름이 그렇게 배합이 됐다는 얘입니다. 그게 화두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화두라고 알면 그냥 우리 살림살이가 참선이고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나는 조용하게 좀 앉아 있고 싶다 그러면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서서 좀 명상하고 싶다 그러면 명상하고, 졸린다 하면 자고, 똥 누고 싶다 하면 똥 누고야, 그런 게 그대로 여여하고 그게 삶이요 그게 참선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자3(남)** 네,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이 지금 이사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큰스님** 아이고 참!

**질문자3(남)**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물론 종교적인 방법에서는 어쩌면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자기 몸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건 이 사회의 흐름에 어긋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는 동물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처럼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땐 이 사회생활 자체 내에서 오히려 배제당할 그런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큰스님** 그럼 내가 한마디 해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자3(남)**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이 곧 좌선이고 그것이 곧

**큰스님** 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다면 무슨 생각이 나더라도,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나더라도 그거를 잘못했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얘 겁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몸뚱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갑니다. 마음이 움직여가면 바로 몸뚱이가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마음 내는 거와 몸뚱이가 움직여가는 게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닌데다가 자기가 그르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도 있고 사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쁜 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이끌어지는 게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바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바로 부(父)가 되게 만들고 자(子)가 되게 만들고, 어떠한 거든지 자유자재하게 될 수 있다는 얘이죠.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어디에다 뒀어 됩니까? 저희들이 배워 온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위에서 만들어 온 구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실질상으로 자기가 참나를 찾았을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거하고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큰스님** 예. 이 참선에는 그보다 옳다 이거를 다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죠. 배가 지금 고파서 죽겠는데 내가 이 밥을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이걸 떠나야죠? 그냥 먹죠?

사명 대사가 말합니다.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손에 쥐고 와서 서산 대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새를 내가 놔 주겠습니까, 안 놔 주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일어나서 문지방을 터억 걸터 쪼고 서서 "내가 일로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든 들어오든 자기가 결정짓기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마음으로 요다음에 또다시 만나기를 빌면서 그럼...

※ 위 법문은 1991년 3월 31일 시카고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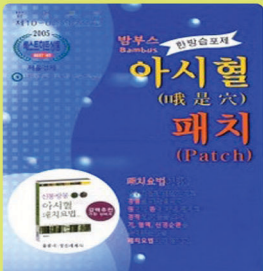


### 무료 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고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 복사, 프린트 모두 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인  
순발인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열 패치(30매)  
금액: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스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이며  
미소와 진심을 전합니다.  
3단 큰조 완판  
(지정 날짜, 시간에 배송 가능)  
금액: 100,000원



5차 재입고, 매번 인기 상품  
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실 온수피어 카펫 매트  
금액: 330,000원



풍수주론(風水總論)  
이산 정태상선생님의 연구풍수력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35,000원

### 현불삼 특가판매

##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상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x D40cm x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